

장 자크 루소에서 언어와 정치
-폴 드만과 자크 데리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Language and Politics in Jean
Jacques Rousseau-Focusing on the
Critique of Paul de Man and
Jacques Derrida

< 대표저술 >

- 『비판적 현대성의 정치적 상상력』 다인아트, (2006).
『정치적 비판이론을 위하여』 다인아트, (2006).
『박인환, 정치적 메타비판으로서의 시세계』 다인아트, (2008).

관심분야 : 정치이론, 정치철학, 정치사회학, 문화학

E-mail : ghseo@inha.ac.kr

•서규환(Seo,Gyu-hwan)

- 학위취득대학 : 독일 빌레펠트(Bielefeld)대학교 사회과학박사
- 현직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논문접수일 : 2008년 3월 20일
논문심사일 : 2008년 4월 2일
게재확정일 : 2008년 4월 16일

장 자크 루소에서 언어와 정치 -폴 드만과 자크 데리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국문요약>

언어가 사유를 표현하는,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단순한 도구로 이해될 때 정치는 언어 “밖”에 있다. 언어는 사회의 복합적인 매체인 한에서 언어와 정치의 관계는 단순하게 이해될 수 없다. 장 자크 루소는 이 문제를 치열하게 성찰했던 사상가였고, 그의 정치사상적 사유는 바로 언어와 사회의 시원에 관한 성찰과 연결되어 논의된다.

시원적 은유가 시로서 “오류적”일 수 있다면 언어는 시원적으로 은유적인 것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데리다가 루소의 언어이론을 해석, 해체하면서 파악하고 있듯이, 시는 그 본질상 은유적이고, 하지만 드만이 해체주의적 “이론에 대한 저항”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은유가 필연적으로 시원적 시이거나 오류일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데리다는 그의 문자학에서 루소를 해석할 때 반인간주의를 후기구조주의적으로 급진화하는 가운데 개인주의적 주체와 상호주체성(상호주관성)을 개념적으로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루소를 잘못 평가하고 만다. 루소는 단순하게 데리다가 집요하게 파고들어 들추어내려는 개인주의적 그 “목소리를 예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집합적 목소리로서의 소리와 비판적 글을 예찬한다. 긍정적인 글을 “철학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작업하는 비판적 글이 없다면, 집합적 목소리는 긍정적 글을 심화시키는 데 도구화될 것이다. 글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판적 글은 사회적 본래성의 조건이다.

[주 제 어]

루소, 드만, 데리다, 해체, 탈구성, 총체성, 재구성, 탈구조주의, 시원

I. 서 론: 정치와 언어

언어가 사유를 표현하는,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단순한 도구로 이해될 때 정치는 언어 “밖”에 있다. 언어는 사회의 복합적 매체인 한에서 언어와 정치의 관계는 단순하게 이해될 수 없다. 장 자크 루소는 이 문제를 치열하게 성찰했던 사상가였고, 이른바 입법자의 문제는 바로 언어와 사회의 시원에 관한 성찰과 연결되어 논의된다.

입법자가 과학적으로 매개하려면 표명되어야만 한다. 바로 여기에서 루소 자신이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언어이론적 문제 틀이 등장한다. 루소는 “사회계약에 대해서” 이 문제들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현자들이 일반적 사람에게 이 일반적 사람의 언어(langage) 대신에 자신들의 언어로 말한다면(parler), 그 일반적 사람에게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인민의 랑그(langue du peuple)로 번역될 수 없는 수천의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¹⁾

여기에서 우리는 현자의 언어가 일반적인 사람의 언어와 왜 다르며, 무엇에 의해서 다른가 하는 의문과 다른 한편으로 인민의 랑그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우리는 후자의 의문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보자. 인민의 랑그는 루소(J.-J. Rousseau)가 <언어기원론> 제3장에서 최초의 언어(le premier langage)라고 간주했던 형상적 언어(le langage figuré)와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다. 즉 그것은 시가 아니다. 인민의 랑그는 “약정의 랑그(la langue de convention)”이다(Rousseau 1959~1969, III 496). 약정적 산문(Prosa).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3-BS0010)

1) 굵은 글씨의 강조는 필자가 임의적으로 한 것임. 거의 모든 번역이 이 구절들을 번역할 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불어에 고유한 언어들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지 못하는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루소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 한국번역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한다. 인용할 때, 독일번역본, 영어번역본, 한국어번역본을 참고했다.

루소는 <언어기원론> 제3장에서 “첫번째 언어는(le premier langage) 형상적이어야 했다”라는 표제어를 붙이고(Rousseau 1970, 497), 첫번째 언어는 시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고 판단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도록(parler) 움직이게 했던 첫 번째 동기가 열정이었다면, 그 사람들의 첫 번째 표현들은 비유(trope: 그림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형상적 언어가 먼저 성립하고, 고유한 의미(le sens propre)를 사람들은 마지막에 발견했다. 사람들은 사물들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형상을 가진 것을 보았을 때에서야 그 사물들의 진정한 이름들을 부여했다. 사람들은 먼저 시로(en poésie) 말하고, 이성애 맞는 고찰은 매우 나중에서야 하게 되었다(Rousseau 1970, 498).”

형상적 언어가 첫 번째 언어로서 시이고, 그것은 인민의 보편적 소통적 랑그로서 아직은 승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약정적 랑그가 오해없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는 있다. “야생적 인간(un homme sauvage)”(Rousseau 1970, 498)은 루소의 언어이론에서 시적 인간이고, 이 시적 인간은 자신의 시적 표현 이전에 어떠한 존재론적 약정성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류적일 수 있는 인간이다. 시원적 시적 표현의 상호양해능력 은 시적 언어 그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인 경험들을 한 다름에서야 진정한 약정성으로서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루소는 <언어기원론>에서 “야생적 인간”의 “최초의 오류(première erreur)”(Rousseau 1970, 498)라는 가능한 가설이라는 언어이론적 예를 가지고서 표현이 고유한 의미를 가지기 이전에 어떻게 형상적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Rousseau 1970, 498) 설명한다.

“한 야생인이 다른 야생인과 마주쳤을 때 우선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의 놀람은 그로 하여금 그 자기 자신보다도 그 사람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힘이 센 것으로 보게 했을 것이다. 다면적인 많은

경험들을 한 다름에서야 그는 거인이라고 생각했을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자신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것도 아니며 그 형상이 이전에 거인이라는 말을 붙였던 자신의 그 표상과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와 그 사람에게 공통적인 다른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며, 예컨대 인간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을 것이며, 그가 잘못 알고 있었을 동안에 그 사람에게 붙였던 거인이라는 이름을 잘못된 대상에게 남겨두었을 것이다. 이것은 고유한 의미의 단어 이전에 형상적 단어가 어떻게 먼저 성립했는지, 즉 열정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서 곧 열정이 우리에게 부여했던 첫 번째 인상은 어떻게 진정한 것이 아닌지를 보여주고 있다. 내가 단어들과 이름들에 관해 말했던 바는 어려움이 없이 전체 문장들에게도 해당한다. 열정에 의해서 생성된 기만적 이미지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대응했던 언어(langage)는 어디까지나 먼저 발명되었던 언어일 것이 분명하다. 이 언어는 계몽된 정신(l'esprit éclairé)이 자신의 첫 번째 오류를 인식하는 가운데 이러한 표현들을 그러한 언어를 나오게 만들었던 저 열정의 사례들에서만 활용하였으므로 은유적이 되었다(Rousseau 1970, 498).”

거인과 인간의 차이는 잘못된 가설, 다시 말해서 소통적 사회에서는 유지, 지속될 수 없는 가설과 진정한 가설, 다시 말해서 집합적 가설로서 승인될 수 있는 정당한 동일성의 그것사이의 차이이고, 그 동일성이 반형이상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음은 가설적으로 가능한 “최초의 오류”로써 함의되어 있다.

시원적 은유가 시로서 “오류적”일 수 있다면 언어는 시원적으로 은유적인 것으로서 고려되는 것이다. 데리다가 루소의 언어이론을 해석, 해체하면서 파악하고 있듯이, 시는 그 본질상 은유적이고, 하지만 드만(Paul De Man)이 해체주의적 “이론에 대한 저항”에서 주장하고 있듯이(De Man 1982, 3-20) 은유가 필연적으로 시원적 시이거나 오류일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루소의 술화적

(narrative) 재구성에서 **거인**의 시원적 시는 **인간**의 시원적 산문과 다르지 않게, 은유적이다. 은유는 루소의 언어이론적 논리에서 진리 능력적인 언어를 의미하는 집합적 가설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시원적 시는 집합적 가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은유로서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판된다. 은유가 “진리”로 전형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은 언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이며 동시에 비언어적인 약정성에 있다. **인간**의 산문은 발생적으로 시적이며 구조적으로 진리능력적인 반면에 **거인**의 시는 아직 자신의 고유한 순수한 차이의 지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거나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적 랑그가 있다는 것은 결코 모순성이 아니다.

“사람들은 최초의 인간들의 언어(langage)는 기하학자들의 랑그들이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시인들의 랑그들이었다고 본다(Rousseau 1970, 497).”

“동양의 랑그들”(langues orientales)은 본질적으로 살아있으며 형상적이지만 소통능력적이므로 천재적이라고 루소는 평가한다. 인간의 산문은 집합적 시, 즉 산문이며 반면에 거인의 가설들은 고독한 사적인 시이다. “빠롤”(la parole)은 루소의 <언어기원론>에서 첫 번째 사회적 제도(Rousseau 1970, 495)이고, 빠롤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고, 약정의 랑그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Rousseau 1970, 495) 판단한다.

루소는 약정성의 사회적 기초로서의 욕구와 열정을 구별하고, 두 종류의 랑그를 병렬시키고 있다. 즉 그 한 쪽에서는 시원, 삶, 등등이 속해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변종(décadence) 등이 속해 있다 (Derrida 1967, 455).

그런데 이 양자사이에 역사적인, 인과적인 통시적인 관계가 있는가? 루소는 왜 자신의 언어이론적 논술을 랑그의 기원에 관한 에세이라고 하지 않고 랑그들의 기원에 관한 에세이라고 명명했을까?

장 자크 루소에서 언어와 정치 - 폴 드만과 자크 데리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301

이 의문은 모든 다른 언어들이 환원되게 하는 하나의 중심주의적 랑그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과 관련된 것이다. 루소는 부정적으로 답한다. 그는 “랑그의 최초의 발명은 욕구(필요)가 아니라 열정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²⁾ 빠롤의 최초의 발명은 시원적으로 열정적이었던 반면에 남방의 랑그들은 열정에 의해서 성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소는 <언어기원론>의 부제에서 랑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함의는 남방의 랑그 내에서 다원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빠롤의 최초의 발명을 가능하게 했던 그 열정이 남방의 랑그들의 시원을 형성한다. 언어(langage)의 시원은 열정적이다.

북방의 언어인 욕구의 언어는 발생적으로 볼 때 시원적인 것이 아니고 포스트기원적(post-ursprünglich)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시원적이다. 남방의 욕구언어에 대하여 남방의 열정적 언어가 발생적으로는 우선하지만 양자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양자사이에 혁명적인 불연속이 있기 때문이다. 루소는 남방의 언어에서 북방의 언어로 발생적으로 이행하는 과정들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인간이라는 류(인류)는 더운 지역들에서 성립하여 이곳에서부터 추운 지역들로 확산되어 갔다. 이 추운지역들에서 그들은 수가 많아 지자 다시 더운 지역들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변동과 반변동과 더불어 지구상에는 혁명들과 주거하는 사람들의 점증하는 동요들이 생겨나게 되었다(Rousseau 1970, 504).”

더움이 언어의 발생적 시원이고, 발생적으로 더움의 언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차거움의 언어는 포스트기원적이다. 더움이 차거움으로 이행하는 전형과 그 역의 과정이 혁명적이고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자사이에 발생적 관계들이 있는 한에서 그 관계들이 절대적으로 불연속적이라 잘라 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연속적이면서 동시에 불연속적이라 말할 수 밖에 없는 아프리오리이

2) <언어기원론> 제2장의 표제어 참조.

302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집

다.

거인과 인간의 차이는 이 맥락에서 다름 아니라 남방의 언어와 북방의 언어사이의 구별이며 그렇지만 연속성과 동시에 불연속성이 있다. 연속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인과 인간이라는 두 표현이 다른 대상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때문이다. 불연속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표현들이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거인은 야생인의 시, 더 잘 말하면, 시원적 시인의 시이다. 이 시의 생산자는 동시에 매개없는 그것의 수용자이다. 정보의 송부와 수신은 공론의 시원적인 부재 속에서 완전히 “사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시원적 시는 “무고하다(Unschuld)”. 그것은 사회적 산문 이전의 자연적인 언어이고, 총체성으로서의 자연의 자연적 자기유지가 아직은 파괴되지 않은 것이다.

거인은 총체적으로 시적이며, 준동물적이다. 루소에 의하면, 최초의 시대들(les premiers temps)의 이 야생적(wild) 인간들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진다.

“최초의 시대들에서 지구상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던 인간들은 사회형태로서는 가족이라는 사회형태만을 범으로서는 단지 자연의 법만을, 랑그로서는 몸짓과 몇가지 분절되지 않은 소리들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형제에 대한 어떠한 공통의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들은 유일한 척도로서 단지 육신의 힘만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각자가 다른 자의 적이라 상상했다. 그들의 허약함과 그들의 무지가 그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다. 그들은 아무 것도 몰랐으므로 그들은 모든 것에 두려워했으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 혼자 있는 한 인간은 지구상에서 전 인류를 희생하고자 존재하려는 하나의 야생적인 동물임에 틀림없었다. 그 인간은 자신이 다른 자들에게서 공포를 느꼈던 고통을 다른 모든 자들에게 주려고 있다. 공포와 허약함은 끔찍함의 원천이었다(Rousseau 1970, 504ff 제9장).”

장 자크 루소에서 언어와 정치 - 폴 드만과 자크 데리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303

아직은 사회성을 얻지 못했다는 것, 산재해 있다는 것이 최초의 시대들을 특징짓고 있다. 루소는 이러한 의미에서 최초의 시대들에 대해서 중요한 주석을 붙이고 있다; “최초의 시대들로 내가 부르고 있는 시대는 사람들이 여전히 흩어져서 있었던 시대이고, 인류의 역사가 얼마만큼 되었던지간에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시대에 거주하고자 한다(Rousseau 1970, 504ff 제9장).” 흩어져 있다는 것, 이 산재성은 최초의 것으로서 결사성과는 다른 것이다. 이 첫 번째의 것은 진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언어기원론>에서 인용한 그 문장들에서 가족은 사회라는 표현을 붙이고는 있으나 결사체를 의미하지 않는다(Derrida 1967, 357; Derrida 1983, 433). 왜냐하면 그것은 원시적 산재를 제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크 데리다(J. Derrida)는 자신의 탈구조주의를 이론화하면서 루소의 언어이론에 집중, 분해하고 있는 그의 문자학에서 루소의 경우 그의 제2논술과 <언어기원론>사이에는 이론적 연속성이 있다는 해석적 명제를 주장하고, 첫 번째 시대들의 가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첫번째 시대들에 앞서 있는 것에서도 아무 것도 없으며, 두 텍스트들 사이에는 엄밀하게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변이(Verschiebung)도 없다.” “제2논술에서 야생적 인간은 숲속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으며 어떠한 직업도, 언어도, 집도 알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언어기원론>에서 야만인은 가족, 움막, 비록 언어가 몸짓과 몇가지 미분절된 소리로 제한되어 있었기는 하지만 언어도 소지하고 있었다.” “루소는 서로 다른 이어지는 두 상태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기원론>에서 가족은 사회가 아니라 모스코니(J. Mosconi)가 상기시키고 있듯이, 그것은 선제도적인, **순수** 자연적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현상이다(Derrida 1967, 357f; Derrida 1983, 433).”

우리는 이 데리다의 해석에 의문을 느끼고 있다. 제2논술과 <언어기원론>이 연속된다는 그의 명제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304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집

것을 논증하는 논리에 대해서 우리는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데리다는 첫 번째 시대들(최초의 시대들) 내에서 야생적 인간과 야만적 인간사이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고, 그리하여 가족의 발생적 전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데리다가 주장하듯이(Derrida 1983, 432) 최초의 시대들에 앞서는 어떠한 것도 없으며 야생적 상태가 “시민사회”보다 더 오래된 야만적 상태보다 앞서는 것이라면(Derrida 1983, 407), 야생적 인간이 직업도, 언어도, 집도 알지 못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야생적 인간은 야만적 인간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도 야만적 인간이 순수한 자연이 아니라 아직은 완전한 사회가 아닌 사회의 종류이기 때문이 아닐까. 야만적 인간은 “가정적(내부적) 랑그들(des langues domestiques)”(Rousseau 1970, 510 제9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몸짓의 언어를 함의한다. 이 언어는 시원적이며, 남방적이다.

“가정적 랑그들”과 “인민적 랑그들”(Rousseau 1970, 제20장)사이의 구별은 자연상태와 사회상태사이의 차이에 조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적 랑그들이 야생성과 야만성을 특징짓는다는, 다시 말해서 “가정적 랑그들”이 야생적인 시대에서 야만적인 시대로 진화적으로 발전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루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총체성과 자연적인 전사회적인 총체성 - 이 후자는 **자연적인 자연**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며, 그것은 야생성과 야만성사이의 구별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이 점은 루소가 <언어기원론>을 어떻게 차례(내용)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 곧 <언어기원론> “제9장 남방랑그의 형성”, “제10장 북방랑그의 형성” 또한 “제13장 멜로디에 대하여”와 “제14장 하모니에 대하여”가 그러하다.

형상적이며 시적 언어들인 “가정적 랑그들”이 언어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가족 역시 “사회”이긴 한 것이다. 역으로 말해서, 자연적인 가족은 진정한 사회가 아니며, 이 점은

장 자크 루소에서 언어와 정치 - 폴 드만과 자크 데리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305

가정적 랑그들이 진정한 언어들이 아닌 것과 같다. <언어기원론> 제9장에서 루소는 전사회적인 시적인 언어가 혹은 가족사회가, 진정한 언어나 진정한 사회를 구성(현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진정한 랑그들은 결코 가정적 시원들(une origine domestique)이 아니며, 그것의 성립에는 **보다 일반적인, 그리고 보다 지속적인 약정(une convention plus générale et plus durable)**이 필요하다. 아메리카의 야생인들은 그들이 집에 있지 않을 때에만 거의 말을 한다. 각자 자신의 움막에서 침묵 속에서 싸여 있으며, 자신의 가족과는 기호를 매개로 말을 한다. 하지만 그러한 기호조차 매우 늦게 서야 있게 된 것이다. 야생인은 비교요할 때가 거의 없었고, 유럽인보다 훨씬 더 참을성 있게, 그렇게 많은 욕구들을 가지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했다(Rousseau 1970, 505 제9장).”³⁾

이 인용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정적 랑그들”이 전사회적인 자연적인 시, 형상적 언어 혹은 남방적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점 이외에도 진정한 언어들은 약정의 일반성과 지속성이 그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점이다. 이 약정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언어와 현실적인 사회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 약정성은 보편성의 능력이 있어야 하며 지속적이어야 한다. “인민적 랑그” 혹은 “인민의 랑그는 약정성의 일반성과 지속성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것은 북방적인, 산문적인, 하모니적인, 사회적인 언어가 없다면, 성립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언어는 최소한 한번은 발생적으로 남방적인, 시적인, 멜로디적인, 전사회적인 언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변형되어서 약정성의 일반성과 지속성을 소지하지 못하는 한에서는 그러하다는 것이다.

야생적인 인간이나 야만적인 인간은 철학적인 산문적인 시대들이 성립하기 이전의 시적인 인간이며, 현명한 인간이다. 그들은 그 타

3) Winkler판 독일어본은 오역이 포함되어 있다. Winkler판 p.186 비교하라.

306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집

당성이 오직 순간적일 따름이지만 새로운 종류의 언어를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야생적 언어나 야만적 언어는 욕구가 아니라 열정의 미학적 시이다. 그것은 어떠한 확고성(공정성)도 가지지 않는다. 제2논술에서 루소는, 문화, 사회, 역사, 등등이 미학적인 시에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혁명을 통한 자연적인 시의 자연적인 대체를 통한 철학적인 산문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매우 은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야금과 농업의 발명은 이 커다란 혁명을 만들어낸 두 가지 기술이었다. 인간을 문명화하고 인류를 타락시킨 것은 시인에 의하면 금과 은이라고 하지만 철학자에 의하면 쇠와 밀인 것이다(Rousseau 1959~1969, III 171; Rousseau 1978, 419).”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세계는 “산문의 세계”이며 철학의 세계이고, 반명에 전사회적 자연적 세계는 시적이다. 야금과 농업은 철학적이면서 산문적이다. 루소 연구자들에게 제기되곤 했던 흥미로운 의문 가운데 하나로서 루소가 스스로를 무엇으로 간주했는가 하는 것이다. 철학자 아니면 시인? 이제 여기에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다. “그렇다, 나는 철학자다”라고 루소는 답했을 것이다. <에밀>에 있는 유명한 <사부아르 신부의 고백>에서 그 신부는 자신을 반철학적인 철학자로 아이러니하게 확인한다. 즉 “철학 대신에 진리에의 사랑을, 모든 방법 대신에 쉽고 단순한 규칙”(Rousseau 1959~1969, IV 570)⁴⁾을 실행하려는 철학자로 자신을 확인시키려 한다.

산문적 철학에 대해서 시가 발생적 우선한다는 명제는 역사적으로 생산되어진 사물의 질서를 역사적으로 생산하는 사물의 질서로 혼동하는 가운데에서 폐쇄적 총체성을 이론화하는, “철학자들”이라 불리었던 “계몽주의자들”을, 전사회적 시적 세계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말을 덧붙이자면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 비판하게 한다. 이 명제는 논리적으로 하모니에 대해서 발생적으로 멜로디가 우선한다는 것과 조음하는데, 산문적 세계

4) 주지하듯이 철학은 원래의 어원학적인 의미는 진리에의 사랑이다.

의 합리성구조가 재구성가능하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자연적 자연이나 전사회적 시가 사회적인 산문적인 철학을 단순하게 단념하는 가운데 요청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전적 에피스테메”(미셸 푸코 Michel Foucault)의 비합리적인 구조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을 열어준다.

II. 사회적 은유와 개방적 총체성

폴 드만은 “공포가 관찰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공포의 원인은 무엇인가”(De Man 1979, 150) 하는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 다음, 이 의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언어학적으로 혹은 기호학적으로 답하려 한다. 그 원인은 해체주의적 “은유수사법모델”(De Man 1979, 153 각주 28)⁵⁾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폴 드만에 의하면 공포의 원인은 “이 피조물이 불신의 **근본적** 느낌, 사자나 곰 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행동하리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서는 정반대로 행동하리라는 의심”에, 혹은 “단위체들의 외적인 속성과 내적인 속성의 가능한 불일치”에 있다(De Man 1979, 150). 이와 같은 회의적인 회의주의적인 “항구적 가설”은 그의 수사법적으로 집중된 해체주의적 기호론과 조응한다. 폴 드만은 이 기호론을 의미론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지시하는 것들로서의 기호들을 연구하는 과학으로(De Man 1979, 5), 다시 말해서, “문자적 세계와 형상적 세계사이의 **항구적 긴장**의 조건”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이해한다(De Man 1979, 151. 강조는 필자). 폴 드만이 “은유는 오류이다”거나 “은유는 눈먼이다”라는 유명한 급진적 명제를 텍스트적으로 “정초짓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루소가 탐색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언어의 계보학이라는 유명한 예를 독해하는 가운데에

5) 폴 드만은 공포의 언어학적 함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쓴다. 즉 “공포는 은유의 수사법적 모델에 구조적으로 조응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는 예이다.”

서 전개된 것이다. 폴 드만은 자신의 글 <독해의 알레고리들>에서 루소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즉 루소는 이미 해체주의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거인”은 이미 은유이다. 시원적 의미의 은유적 전이(도출), 즉 은유 되기(Metapher-Werden)를 그와 같이 무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기호론과 의미론을 서로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용사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언어의 계보학에서 은유의 이론이라는 사례에서 보듯이 루소를 일면적으로 잘못 독해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폴 드만이 해체주의적 은유이론을 ”정초짓기 위해서, “독해불가능성의 알레고리”(De Man 1979, 206)을 위해서, 루소를 매우 독창적으로 독해하고 있다. “인간을 내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인’이라는 은유는 **고유한(접합한; proper)**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실제로 **고유하지는(적합하지는) 않다**”(De Man 1979, 151. 강조는 필자)고 그는 해석함으로써 루소가 인간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정초한 이론이 불행하게도 의미론을 기호론적으로 노골적으로 억압하는, 생산주의적 수사법으로 떨어진다. 폴 드만에 의하면, “수사법은 급진적으로 논리를 위협하고, 준거적 변이의 변덕스러운 가능성들을 열어내며”(De Man 1979, 10), “ 텍스트를 생산하는 변증법적 운동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De Man 1979, 187).”

“거인”의 고유한 의미와 “거인”이라는 은유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의 눈땀을 우리는 지적해야 하며, 그가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인간”이라 명명하는 인간과 서로를 “거인”이라 표현하는 전 인간적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루소 스스로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는 그 차이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공포”는 폴 드만이 해석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오직 언어학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학적으로 정초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언어기원론>에서 루소는 지구상에서 산재하여 살아가는 첫 번째 시대들의 인간들은 그들의 허약함과 그들의 무지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말

장 자크 루소에서 언어와 정치 - 폴 드만과 자크 데리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309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해야겠다.

“그들은 결코 형제애에 대한 공통의 관념을 서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들은 유일한 척도로서 육체의 힘만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각자는 다른 모든 자들의 적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들의 허약함과 그들의 무지가 그들에게 이러한 견해를 가지게 했다. 그들은 아무 것도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려워했으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했다. 혼자서, 지구상에서 전체 인류를 희생시키려 했던 개별 인간은 일종의 잔혹한 동물임이 틀림없었다. 개별 인간은 다른 이들로부터 받았던 공포의 고통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줄태세를 하고 있었다. **공포와 허약함이 잔혹성의 원천이다** (Rousseau 1970, 505 강조는 필자).”

루소는 홉스와 대좌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홉스는 가설적으로 “자연상태에서의 모든 인간들은 욕망(desire)을 가지고 있고 해치려 하고”(Hobbes 1998, 4),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 성향은 서로를 해치려 하는 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열정으로부터 도출해낸 것이지만 주로 자신들을 헛되게 평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Hobbes 1998; Rousseau 1986, 337에서 재인용)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 루소는 제2논술에서 “홉스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인간은 본디 대답하여 공격하고 싸우는 일 외에는 바라지 않는다”(Rousseau, 1959~1969, III 136; Rousseau 1978, 340)는 점을 확인한 다음 곧 이어서, 소박하게 언어학적이라기 보다는 인간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좀 길지만 인용할 가치가 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그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컴벌랜드나 푸펜도르프도 또 그것을 보증하고 있다. 즉 자연상태에 있어서 인간만큼 겁쟁이는 없다. 그는 언제나 벌벌 떨고 있으며 바스락대는 소리를 듣거나 사소한 움직임만 보아도 곧 도망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가 당연히 기대해도 되는 육체적인 행, 불행을 가기가 식별

310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집

할 수 없고, 또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자기의 힘을 대항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눈 앞에 나타나는 모든 새로운 광경에 그가 겁을 먹는다는 일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단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만사가 극히 단조롭게 진행되어 토지의 표면도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정념이나 번덕에 의해 야기되는 그 갑작스러운, 더구나 끊임없는 변화를 입는 일이 조금도 없으므로 이상과 같은 상황은 드문 것이다. 그러나 야생인은 동물들의 사이에 분산하여 생활하고 일찍부터 그들과 힘을 겨루는 상태에 있으므로 그는 곧 동물과의 비교를 하게 된다. 그리고 동물이 힘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것 이상으로 인간이 재치에 있어서는 동물보다 뛰어난 것 이상으로 인간이 재치에 있어서는 동물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면 인간은 이미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버릇을 갖게 된다 (Rousseau 1959~1969, III 136; Rousseau 1978, 340).”⁶⁾

두려움, 공포, 혹은 놀람은 분산성, 산재성 혹은 고독의 **자연적 기호들**이다. 야생적 인간들이 서로 만나는 상황은 매우 드물었다.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야생적 인간들은 동물들 앞에서 두려움, 공포, 혹은 놀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야생적 인간이 동물들과 만나는 것은 “새로운 광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포”는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만남으로서의 결사에 대항하는 자연적인 저항이다. 야생적 인간은 그가 우연하게 마주치게 되는 다른 “거인”에 대해서 침묵으로써 반응하게끔 강요받는다. 폴 드만의 해체주의적 “은유의 수사법적 모델”이 형상적이고 시적이듯이, “거인”은 총체적으로 독백적이다.⁷⁾

루소가 “(날말들의) 최초의 발명가들은 자신들이 이미 소유하고

6) 번역은 약간 필자가 수정했다. 인용한 이후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람.

7) 폴 드만이 독백주의를 이론화하는 것은 그가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적 상상력을 비판하는 그의 글에서 가장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다(De Man 1983, 106-114 참조).

있었던 생각들에 단지 이름들만 부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Rousseau 1959~1969, III 150. 여기에서는 De Man 1979, 140에서 재인용. 강조는 필자) 말하는 이 명제적 표현은 총체성과의 관련성없이 이해되지 못하거나 오해될 수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루소가 말하는 그 “최초의 발명가들”은 야생인이거나 야만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로운 것은, 야생적인 인간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능동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그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들 자신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그 생각들”은 자연으로부터 자연적인 총체성으로서 이미 주어졌 있었던 것이다. 총체성없이 단편성(파편성)들은 위험하다.

루소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총체성구조의 전형이지, 총체성없는 단편성의 생산들이 아니다. 중요한 이 차이에 대해서 루소는 <언어 기원론>에서 분명하게 시사해 놓고 있다.

“각자가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라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는 대체로 가능하며, 하지만 각자는 자신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바만을 알고 있었고 회구했을 뿐이었다. 그들의 욕구는 그들을 서로 가깝게 되지 않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떨어지게 했다. 사람들을 서로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하고자만 한다면 서로를 공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만나는 때는 매우 드물었을 것이다. 도처에서 전쟁상태가 지배했지만 전체 지구에서는 평화가 있었다(Rousseau 1970, 제9장).”

차이들이 급진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자연”이라는 동일성이 있다. 시작에서는 동일성과 동시에 차이성들이 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되는 것은, 동일성으로서의 자연이 단지 가설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원 그 자체는 기호이다. 위에서 인용했던 루소의 문장, 즉 “(날말들의) 최초의 발명가들은 자신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생각들에 단지 이름들만 부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문장은, 폴 드만이 차이탈구성의 이론으로 해석하는 바와는(De Man

1979, 148) 달리 차이성과 동일성의 자연적 변증법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바로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폴 드만이 “의식(의도)”을 가지고 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곧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최초의 명사⁸⁾는 고유명사 이외의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었다”(Rousseau 1959~1969, III 150; Rousseau 1978, 355f)는 문장과 <언어기원론>에서 “인간의 최초의 언어는 형상적이어야 했으며” “형상적 언어가 문자적(literal) 의미에 선행한다”는 문장사이에는 모순적인 불일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스스로 답을 제시한다. 즉 “최초의 명사는 고유명사 이외의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었다”는 <논술>(<인간불평등기원론>을 말한다: 필자)의 진술은 따라서 “최초의 언어는 형상적이어야 했다”는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진술로부터 도출된 진술이라는 것이다(De Man 1979, 153). 폴 드만은 명명하는 것을 “감추어진, 눈이 먼 형상”이라고 포착함으로써 앞의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데, 나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총체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 모순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고유명사(proper nouns)는 고유한, 즉 적합한 명사인 까닭은 그와 같은 명명하기가 자연이라는 총체성의 질서에 조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폴 드만은 “에세이(<언어기원론>을 말한다: 필자)에서 서술되어 있는 범례적 상황(인간이 인간과 대좌하고 있는 것)은 제2논술의 상황(인간이 나무와 대좌하는 것)은 언어학적 양식에서 지각, 의식, 반성 등등의 문제들로 변화해가는 이 패러다임으로부터의 변증법적 도출이다”(De Man 1979, 150)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하지 않다. 야생적 인간은 ”가족적 랑그“만을 가지고 있다. 가족 밖에서는 두 종류의 대좌가 등장한다. 이 경우 폴 드만이 고독의 조건 아래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논리적 우선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두 대좌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인가?

8) De Man은 원문의 “nouns”를 “substantives”로 대체하였다.

야생적 인간은 침묵 속에 있으며, 자연이 말한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용이 도움을 줄 것이다. 곧, 루소가 <언어기원론>에서 말했던 그것, “자연이 침묵할 때 의지가 말을 한다”(De Man 1979, 139에서 재인용)는 것.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연적인 명명하기는 “동일성보다는 차이성과 결합하고”(De Man 1979, 158)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성과 동시에 동일성과 결합되어 있다. 루소의 패러다임적 모델은 “정확하게 언어학적 모델”이 아니라 언어학적 모델과 비언어학적 모델 사이의 결합이다. “인간의 정치적 운명은 자연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주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언어학적 모델과 같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고 해석하는/주장하는 폴 드만의 명제는 정당하지 못한 오독이다.

III. 정치적 언어와 욕구의 구조

언어와 욕구의 통태적 긴장은 “언어와 권력”에 대한 루소의 문제제기에 핵심적이다(Starobinski 1980, 172-190. 여기에서는 183). <언어기원론> 제20장 “랑그와 정부의 관계”에서 이에 관해서 논의되고 있다.

“랑그들은 물론 인간의 욕구에 따라 발전한다. 랑그들은 그러한 인간의 욕구들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바에 따라 변화하고 악화된다(Rousseau 1970, 521 제20장).”

욕구의 이론은 루소에 있어서, 그 후의 마르크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Heller 1980 참조; 서규환 2006, 제4장 참조), 핵심적이다. 즉 욕구의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인간학은 정치적이고, 따라서 정치적 인간학이라 부를 수 있는데, 사라지지 않고 전체 이론적 구성의 중요한 차원으로서는 현존해 이어져 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폴 드만이 해체주의의 관점에서 루소와 마르크

스사이의 동일성명제를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폴 드만의 해석은 나의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폴 드만은 이렇게 쓰고 있다.

“루소에 있어서 정치이론의 경제적 기초는 바르고 나쁘다는 윤리적 원칙들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해관심, 식욕, 욕구의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 그것은 언어학적 개념화의 상호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언어가 선택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재현적 권위도 박탈당하고 있는 한에서는, 그것은 유물론적이지도 않고 관념론적이지도 않다. 루소의 경제결정주의와 마르크스의 그것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는 오직 이 관점에서만 접근될 수 있다(De Man 1979, 158).”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폴 드만의 해석과는 정반대로, 욕구의 이론이 루소와 마르크스에 있어서 정치적 이론을 정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행사한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의 욕구이론의 경우 부다페스트학파의 기수 아그네스 헬러(Agnes Heller)가 이미 잘 정리해 놓은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다시 단순하게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루소의 경우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루소는 <정치적 단상들>(Fragments politiques) 제10장 “기후가 문명화에 미치는 영향”(Rousseau 1959~1969, III 529ff)에서 세 종류의 욕구를 구별한다. 첫째는 육체적 욕구, 즉 생존과 보존과 관련되는 종류의 욕구이다(식생과 수면). 둘째는 안락(bien-être)과 관련되어 있고, 원래는 오직 욕심일 뿐이 것이지만 특정한 시대에서는 진정한 욕구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종류의 욕구이다. 부풀어오른 감성과 안락, 성적 결합, 그리고 우리의 감각들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사물들이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종류는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욕구를 말한다. 루소는 이렇게 욕구를 세 종류로 구별하면서 이 모든 욕구들이 상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욕구는 첫 번째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충족된다는 것이다(Rousseau 1959~1969 III 530

장 자크 루소에서 언어와 정치 - 폴 드만과 자크 데리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315

과 1534 참조).⁹⁾ 그리하여 실질적으로는 그는 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욕구만을 구별하고 있는 셈이다. 그 하나는 일차적 질서의 욕구로 부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제2차적 질서의 욕구로 부를 수 있다. 이 구별방식과 그의 <언어기원론>에서의 욕구이론은 조용한다. 욕구와 열정의 관계는 남방과 북방의 구조적 차이에 연결되어 있다.

“자연이 풍요로운 남방들에서는 욕구가 열정에서 성립한다. 자연이 매마른 추운 지역들에서는 열정이 욕구에서 성립한다.” “사실상 북방의 인간들은 무열정적이지 않고, 그들의 열정은 다른 종류의 것이다(Rousseau 1970, 제10장).”

자기 스스로 충분한 남방적 욕구구조는 동태적일 수 없으며, 남방적 열정의 운동들은 필연적으로 “자연의 경제”(자크 데리다)를 따른다. 역사, 사회, 진정한 언어, 글, 결사, 인간성, 등등, 한마디로 내가 앞에서 정치성이라 불렀던 것은 욕구의 동태성이 역할을 행사하는 것을 시작하는 북방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어는 언제나 자연이나 사회이든 총체성이다. 장소(공간)적 차이는 언어의 전체적 구조화를 규정한다. 욕구의 언어로서의 북방의 언어는 진정한 결사의 언어이고, 그것은 욕구의 사회적 만족(충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남방적 언어에서 북방적 언어로 이행해 가는 과정들 사이에서 진화적 발전들이 있지만 양 언어사이에는 급진적 차이가 있는 한에서는, 북방은 또 하나의 시원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Derrida 1967, 386 참조). 욕구들은 북방에서 남방에서와는 대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왜 그러한가? 총체성구조가 다른 것이다, 남방적 자연은 야생적 인간에게 내가 일차적 질서의 욕구라고 명명한

9) 우리는 이 플레이어드 판의 비판적 주석에 따라 루소의 오기를 바로 잡는다. 루소의 <정치적 단상들>중에서 “기후가 문명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단상은 그 수고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1861년 Streckeisen-Moulton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며, 플레이어드 판에서 <정치적 단상들>에 포함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316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집

바의 이미 충분한 만족을 주고 있어서 만족을 위한 인간적 활동은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남방적 자연의 이러한 총체성 구조를 이해하는 이 맥락에서야 욕구는 - 물론 남방적 언어의 예에서 - 인간들을 서로 가깝게 끌어 모으게 하는 대신에 서로를 떨어지게 만든다는 루소의 문장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Rousseau 1970, 제2장). 형상적이며 열정적인 시를 통해서 특징지어지는 남방적 언어는 일차적 질서의 욕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킴을 진체로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자연에 의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는 시는 욕구의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서야 일어날 수 있음을 함의한다. - 우리는 이것을 산문적 모순성들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남방에서 열정은 욕구의 부재에서가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일차적 질서의 욕구가 만족된 다음의 그 욕구들은 사회적 절합(articulation) 이전에 가설화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포스트북방적 열정들의 유토피아로서 발견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토피아란, 글과 산문적 절합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침묵된 욕구는 유토피아로서의 포스트산문적인 시적인 공동체의 은유가 되며, 반면에 “거인”은 반 결사의 은유가 된다. 이 경우 의미들의 도출들이 일어나게 하는 은유적 활동들은 산문이 성립하고서야 비로소 시작한다.

욕구의 언어는 산문이고, 이는 노예의 경우(헤겔)에서 시작한다. 결사의, 결사를 통한, 그리고 결사를 위한 말하기. 그것은 “인민적 랑그”이다. “(북방의 랑그들) 언어는 필요성의 슬픈 딸들이며 (Rousseau 1970, 제10장), 반면에 최초의 언어들(남방의 랑그들), 안락의 딸들이지 욕구의 딸들이 아니다(Rousseau 1970, 제9장).

진정한 언어는 시적이 아니라 산문적이다. 그것은 욕구의 총체적 위기에서, 노예상황에서 시작하며, 그러므로 **비판적** 공동체의 대화가 된다. 시원적 산문은 총체적 위기의, 즉 순수한 시, 안락의 언어를 더 이상 생산하게 만들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린 상황의, 비판적

극복을 위한 해방적 정치이다. 시적인 세계는 산문적인 정치적인 실천의 유토피아이지, 철학의 소박한 노골적인 적이 아니다.

우리는 산문적 세계속에 살고 있으며 이 산문적 세계 이전에 시적 세계가 있었다. 산문적 세계의 시원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의해서 특징지어지고 있다. 즉 북방의 언어, 진정한 언어는 필요성의 슬픈 딸들이며 것이다. 욕구만족의 위기가 언어성, 사회성, 국가성, 인간성, 역사성, 문화, 문명, 한마디로 말하여 정치성의 시작이다. 위기와 비판은 산문적 세계의 시작이래로 이미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 여기에서 언어 스스로 비판적이다. 즉 해방적 언어. <언어기원론> 제10장 “북방언어의 성립”에서 위기와 비판의 변증법이 숙고되어 있다.

“상호교호적인 욕구는 사람들을 감정이 원하는 이상으로 강하게 서로 결합시키게 하고, 사회는 오직 노동을 통해서 형성되어졌다. 항상적인 위험은 사람들이 몸짓언어로만 제한되게 그만 두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람들 아래에서 최초의 말은 **나를 사랑해**가 아니라 **나를 도와줘**였다(Rousseau 1970, 제10장).”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욕구위기의 상호교호성이다.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결합, 결사가 승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와 국가의 시원의 이 맥락에서는 “노동”이 산문적 언어와 동일적이다. 노동과 언어는 동시원적이다, 위기를 비판하고 비판적으로 지양하는 기능에서. 국가는 시가 아니라 산문의 매개이다.

“거인”과 “인간”사이의 의미론적 관계는 우연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듯이 “나를 사랑해”라는 열정의 언어와 ‘나를 도와줘’라는 욕구(필요)의 언어는 의미론적으로 은유의 이론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언어가 은유적으로 전형할 때 우리는 차이의 차이가 아니라 차이성과 동일성의 변증법을 보아야 한다. “나를 사랑해”와 “나를 도와줘”는 “거인”과 “인간”이 그런 것처럼 차이적이면서 동시에 동일적이다.

“이 두 표현들(“나를 사랑해“와 “나를 도와줘“를 말한다¹⁰⁾)는 서로 상당히 동일하지만 매우 다른 톤으로써 발설되었을 것이다. 느끼게 되어야 했던 어떠한 것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이해되어야 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Rousseau 1970, 제 10장).”

동일적이라는 것은 의미론적으로, 철자의 유사성을 넘어서는 소통을 말한다. 두 표현들사이의 차이는 의미론적으로, 톤의 차이를 넘어서, 소통의 공간적 능력에 있다 - “나를 사랑해”는 가정적 공간성에 제한되며, 반면에 후자의 언어는 이를 넘어서 “공적인 장소”(Rousseau 1970, 제20장)에서 사용될 능력이 있다. “나를 도와줘”는, 시원적 산문으로서, 집회하는 인민 앞에서 발설되었으며 잘 이해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자유의 언어이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공적인 장소”에서 함께 모이는가? <언어기원론> 제20장에서 자유의 언어는 집회하는 인민이 서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는 능력이 없는 노예적 언어와 대립되는 것인데 은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진보는 우연적이지도 않고 자의적이지도 않으며, 사물들의 끊임없는 변화에 그 뿌리가 있다. 물론 언어는 인간의 욕구에 따라 자신을 발전시킨다. 언어는 그러한 욕구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바에 따라 변화되며 나빠진다. 고대에서는 설득술이 공론에서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며, 그래서 웅변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엇 때문에 웅변이 필요하겠는가? 공론에서 무엇인가 효력을 미치기 위하여? ‘이것이 나의 안락이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기예도 연설형상화도 필요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민 집회에서 말하기 위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종의 설교같은 것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임명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설득하는 인민이 아닐진대, 설교를 하여 인민을 설득하는 일이 무슨 필요가

10) 필자가 첨가했다.

있겠는가? 인민의 언어는 웅변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쓸모없게 되어 버렸다. 사회는 자신의 최종적 형태를 취했다. 사람들은 대포와 돈이 아니고서는 사회에서 어떠한 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민에게 ‘돈을 쥐’라는 말 이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곳에서는 거리의 모퉁이에서 선전문구로써 말을 하거나 집에서도 군인들을 대동하고 말을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집회도 없다. 이와는 반대로, 백성들은 흩어져 있어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모던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격률이다(Rousseau 1970, 제20장; Starobinsk 1980, 186에서 재인용).”

자유 의 언어는 주인과 노예와 관련되는 총체적 위기 - 예컨대 욕구의 위기 - 에 대항하는 비판적 언어이고, “욕구의 언어”는 그러한 위기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려는 자유의 언어이다. 그것은 인민의 집회에서 사용될 능력이 있는 “약정적 랑그”이다. 약정적 산문. 자유의 해방적 산문은 전사회적 멜로디가 아니라 하모니이다.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심사숙고된 언어들”은 역시 하모니적이다. 하모니적 언어는 해방적일 수 있다. “나를 도와줘”는 닫힌 공간의 긍정적 (affirmative) 하모니 - “돈을 쥐”라는 말이 앞의 그것과 대조를 이룬다 - 와는 대조되는 것으로서 인민집회의 **비판적 하모니**이다.

“돈을 쥐”라는 긍정적 하모니의 폐쇄성은 “국가적” 폭력과 “공공의 장소”의 배제를 통한 억압, 일변적 소통과 필연적으로 케를 같이 한다.

“사람들이 인민에게 ‘돈을 쥐’라는 말 이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곳에서는 거리의 모퉁이에서 선전문구로써 말을 하거나 집에서도 군인들을 대동하고 말을 한다.”

“거리의 모퉁이에서 선전문구로써 말을 한다는 것”은 일면적인 소통을 함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론에 가하는 일면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글의 정치적 기능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

작성(writingness)에 대한 루소의 비판은 오직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만 해석되어야 한다.

시원적으로 하모니가 낭만적이지 않듯이, 시원적인 글은 문명 속에서 북방적이다. 루소의 정치적 이론에 있어서는, 자크 데리다가 자신의 문자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목소리(음성)과 문자(글)사이의 노골적인 대립적인 고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 사회의 상호교호적 소통이 중요한 관건이다. “나를 도와줘”라는 말은 닫힌 공간에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하늘 아래” “공공의 장소”에서 발설되는 것이며, 그것이 북방적인 한에서 문자성에 다름 아니다.

IV. 맺음말

언어의 정치라는 테마가 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파악력과 관련되어 있다. 다양하고 다면적인 탈구조주의 운동이 전개되면서 언어의 본질이 형식적 수사법적 차원 속에서 탈구성(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자크 데리다와 폴 드만은 장 자크 루소를 독해하는 방식으로 각기 자신의 입장을 표출시켰으며, 그것은 탈구조주의 운동의 모형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다. 데리다와 드만은 루소를 완전히 상반되게 해석하지만, 그들 자신의 이론적 입장은 완전히 다르지 않다. 언어는 진리의 보편성을 표현할 수 없고, 오직 단편들만을 표현하며, 그런 한에서 언어의 정치성은 선언된다. 이들의 언어파악은 “텍스트” 내에서만 움직인다. 나는 이런 이론적 입장을 루소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내재적으로 비판한다. 언어는 자신의 진리능력을 언어 안과 밖을 엮어가면서 표현한다. 그 표현의 논리를 나는 열린 총체성이라 부른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언어의 정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치성의 내용과 형식은 탈구조주의의 단편성과는 매우 다른 종류이다* 11)

장 자크 루소에서 언어와 정치 - 폴 드만과 자크 데리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321

< 참고 문헌 >

- 루소, 1978,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사회계약론/인간불평등기원』. 최석기 역. 동서문화사.
- 서규환, 2006, 『정치적 비판이론을 위하여』. 다인아트.
- Bloch, Ernst, 1977, *Das Prinzip Hoffnung*. Band 2. Ffm.
- De Man, Paul, 1977, "On reading Rousseau." *Dialectical Anthropology* 2.
- De Man, Paul, 1978, "The epistemology of metaphor." *Critical Inquiry*. vol. 5.
- De Man, Paul, 1979, *Allegories of Reading: Figural Languages in Rousseau, Nietzsche, Rilke, and Proust*.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Paul De Man, 1982, "The Resistance to Theory." *Yale French Studies*. Nr. 63.
- De Man, Paul, 1983, "Dialogue and Dialogism." *The Resistance to Theory*. University of Minnesota.
- De Man, Paul, 1986, *The Resistance to Theory*. University of Minesota Press.
- Derrida, J., 1967, "La linguistique de Rousseau."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No. 82.
- Derrida, J., 1967, *De la Grammatologie*. Paris.
- Derrida, J., 1983, *Grammatologie*. Ffm.
- Fletcher, Angus, 1964, *Allegory. The Theory of a Symbolic Mode*. Cornell University press.
- Heller, Agnes, 1980, *Theorie der Bedürfnisse bei Marx* 2.

* 이 논고는 Gyu Hwan Seo, *Politik und politische Theorie der kritischen Krisenwissenschaft*, Bielefeld 1988에서 "3.1. Politik und Sprache"를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 unveränderte Auflage. Hamburg.
- Hobbes, Thomas, 1998, *On the Citizen*. edited by Richard Tuck & Michael Silverthor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ules Pépin, 1958, *Mythe et allégorie*. Paris.
- Metzger, Wilhelm, 1966, *Gesellschaft. Recht und Staat in der Ethik des deutschen Idealismus. Mit einer Einleitung: Prolegomena zu einer Theorie und Geschichte der soziale Werte. aus dem Nachlass herausgegeben von Ernst Bergmann. Neudruck der Ausgabe Heidelberg. 1917*. Aalen.
- Peirce, Charles Sanders, 1974, "Some consequences of four incapacities." Charles Hartshorne/Paul Weiss (ed.).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ume V*. Fourth Printing.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Rousseau, J.-J., 1970, "Essai sur l'origine des langues." *Oeuvres complètes de J.-J. Rousseau*. Avec des notes historiques. tome troisième. Paris.
- Rousseau, J.-J., 1986, *The First and Second Discourses. together with the replies to critics and Essay on the Origin of Languages*. newly edited. translated and annotated by Victor Gourevitch. New York et al.
- Rousseau, J.-J., 1959~1969, *Oeuvres complètes*. edited by B. Gagnebin & M. Raymond vol 4 vol. Paris: Gallimard Biblioth que de la Pl iade.
- Seo, Gyu Hwan, 1988. *Politik und politische Theorie der kritischen Krisenwissenschaft*. Bielefeld. Diss.

- Starobinski, J., 1980, "Rousseau und die Niedergangsthematik. Einige Bemerkungen zur Prosopödie des Fabricus." R. Koselleck/P.Widmer(Hg.). *Niedergang*. Stuttgart.

Language and Politics in Jean
Jacques Rousseau
- Focusing on the Critique of Paul
de Man and Jacques Derrida

Seo, Gyu-hwan
(Inha University)

Abstract

Politics is "outside" of language, if language is thought to be only a perfect instrument expressing thoughts. However, the relationships between language and politics cannot be so purely understood, in so far as language is a complex and social medium of complex societies.

According to Jean Jacques Rousseau, "un homme sauvage" can be a man of error who doesn't know any conventionality. But it is not clear that all metaphors must be primitive and in error, as Paul de Man presented in this thesis for "Resistanceto theory" .

Rousseau noted that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problem comes at the transition from the poesie world to the prosa world, from the presocial to the true social langue. At the transition, poesie functions politically as much as it does spiritually. Poesie as the source of eloquence, not as eloquence itself, functions politically in the prosa world. In summary, without a collective

hypothesis, it is impossible for a legislator to ground a body politic. The first poesie can be transformed into the prosa world.

Derrida misinterprets Rousseau's theory of intersubjectivity that is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individualism. Rousseau argues for collective voices and writing, not an individualistic voice.

Keywords: Rousseau, de Man, Derrida, totality, language, politics, deconstruction, reconstruction, origin, poststructuralism